

월간 주요 이슈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3. 3. 23.)

안전기준 위반 학용품·완구류 24만 개 국내 유통 사전 차단

-국표원 관세청, 새학기맞이 학용품·완구류 안전성 집중검사로 불법제품 차단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학용품·완구·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*을 대상으로 2월 한 달간(2.1.~2.28.)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24만 개(273건)를 적발하였다.

*연필류·연필심, 필통, 지우개, 샤프 연필·샤프 연필심, 그림물감, 크레용·크레파스, 리코더, 완구, 어린이용 키보드, 노트북 컴퓨터, 태블릿PC, 프로젝터

- 적발된 제품으로는 지우개, 연필,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 개로 가장 많았으며, 완구류 약 3만 4천 개, 태블릿PC 약 1천 개가 그 뒤를 이음
- 안전인증 미획득(약 16만 4천 개), 표시기준 미이행(약 4만 4천 개), 표시사항 허위기재(약 3만 4천개),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 등 안전기준 부적합(약 2천 개) 제품을 적발

구 분	학용품	완구류	온라인 수업기기	합 계
조사대상	293건	341건	74건	708건
적발건수	147건	110건	16건	273건
적발수량	209,025개	34,243개	1,378개	244,646개

- 안전성 검사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·확인
-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,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
-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이 수입·유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, 국내·외 리콜 제품, 사회적인 관심 품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강화할 것이며, 신기술·융복합 제품 출시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.

❖ [참고] 새학기 학용품·온라인 수업기기 통관단계 부적합 적발 구분

구분	품목명	집중검사 부적합 적발				조치내용
		업체수 (수입)	모델수	건수	수량	
① KC인증미필	완구	37	37	78	18,715	통관보류
	필통	33	5	33	4,976	
	지우개	16	7	22	119,181	
	연필류·연필심	13	11	20	15,819	
	샤프연필·샤프연필심	7	5	8	3,410	
	태블릿 PC	5	5	5	925	
	그림물감	4	3	4	181	
	크레용·크레파스	2	2	2	600	
	노트북 컴퓨터	2	2	2	7	
	어린이용 키보드	2	2	2	5	
	리코더	1	1	1	100	
	소 계	122	80	177	163,919	
② 허위표시	완구	8	8	11	5,992	통관보류
	연필류·연필심	7	11	11	12,132	
	지우개	3	4	4	5,793	
	필통	4	4	4	9,203	
	샤프연필·샤프연필심	1	1	1	1,440	
	소 계	23	28	31	34,560	
③ 표시위반	연필류·연필심	4	32	34	32,634	통관보류
	완구	9	15	19	9,531	
	노트북 컴퓨터	3	6	6	389	
	태블릿 PC	2	2	2	52	
	프로젝터	1	1	1	5	
	지우개	1	1	1	1,440	
	리코더	1	1	1	100	
	소 계	21	58	64	44,151	
④ 안전기준부적합	지우개	1	1	1	2,016	통관보류
	소 계	1	1	1	2,016	
합 계		167	167	273	244,646	

비고)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,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